



해외

WORLD

“한국어 재미있고 유익해요”



네팔 카트만두에 설립된 세종 한국 문화 언어교육원이 8월 7일 두 번째 수료식을 봉행하고 3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위의 큰사진). 수료증을 받은 수강생들(오른쪽 사진)은 다음 단계로 전입해 심화 교육을 받게 된다. 지난 5월 영봉 스님으로부터 후원금과 선물을 전달받은 메추 지역의 난민촌 어린이들.

네팔 카트만두의 발우와파르 지역에 설립된 세종 한국문화 언어교육원(원장 영봉, 이하 교육원)이 8월 7일 두 번째 수료식을 갖고 초급 과정과 초급 2단계 과정 등 33명을 배출했다. 지난 3월 27일 초급과정 38명 배출에 이어 두 번째 수료식이었다.

네팔 세종교육원 두 번째 수료식 38명 배출 영봉 스님, 메추지역 난민촌에 후원금도 전달

최근 귀국한 영봉스님은 “대한 불교진흥원과 인우회를 비롯한 국내 단체와 불자들의 후원에 힘입어 두 번째 학기도 무사히 마쳤다”고 전했다. 스님은 “현지의 관광가이드나 셀카 포타 등을 직업으로 하는 청년층이 한국어 배우기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단계별 교육시스템이 정착됐다.

교육원이 직접 제작한 한국어 교재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초급반 강의를 시작

으로 문을 연 교육원은 한국어 교육 시스템을 정착시키면서 컴퓨터 교육 체계도 수립했다. 현지의 사정으로 교육을 컴퓨터를 대량 구비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학생들의 높은 의욕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등으로 컴퓨터 교육도 활성화 될 것이라 영봉 스님의 전언이다. 한국어 교육은 초급반을 시작으로 차차 단계를 높여 가는 형식

으로 진행된다. 이미 두 학기동안 2단계를 거쳐 온 학생들은 한국인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 관광이나 등반 안내에서 ‘아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 교육원은 12월 중순 이어지는 세 번째 학기에서 초급 과정 70명과 초급2단계 40명, 중급 1단계 40명 등을 모집해 개강할 계획이다.

한편 영봉 스님은 지난 5월 18일 미얀마 난민촌인 메추 지역의 민주화 운동 단체와 학교 교직원 등에 한국에서 모금된 후원금 1만 달러를 미얀마 N.L.D. 메추 지역 의장을 통해 전달했다.

임연태 기자

연꽃마을, 스님 간병비 절반 지원

‘노후 염려되지 않는 수행 환경 만들기 캠페인’... 종단협 가입 종단 스님 지원

한 비구니스님이 뇌경색으로 절반 가까운 뇌를 절단했다. 스님은 반신불수가 돼 수행은 고사하고 요양원에서 반평생을 지내야 할 처지가 돼 치료비가 없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가까스로 속가가족 등이 비용을 마련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 등을 감당할 수 없었다. 몇 개월 못가 가족 간 불화만 가득 남겼다.

체계적인 승려노후복지가 마련돼 있다면 어땠을까? 스님은 물론 불자 모두가 스님들이 안심하고 간병을 받으며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바라는 때 노인복지단체 연꽃마을(대표 이사 각현)이 9월부터 병환 중인 스님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각현 스님은 9월 7일 연꽃마을과 파리밀요양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1월부터 실시 중인 ‘스님 간병비(요양비) 모금 운동’을 통해 모금하고 있는 후원금을 요양원·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스님들에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꽃마을에서 마련한 ‘스님 간병비 지원 규정’은 11개 조항의 규정으로 구성되었다. 규정에는 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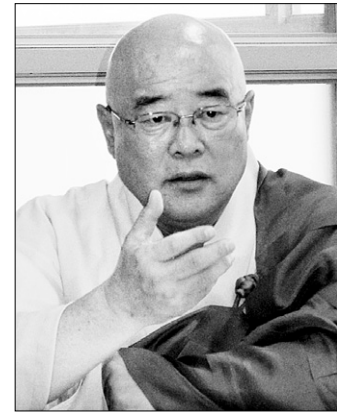
적,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방법을 명문화했다.

규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조계종 비구·비구니스님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가입된 종단 스님은 연꽃마을이 운영하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누구나 요양비나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요양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스님은 건강등급 1-2등급에 한 한다. 요양원에서는 요양비 본인 부담금 중 50%, 요양병원에서는 간병비(거주료 포함) 50%를 지원받게 되는데, 이용하는 병실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받게 되며, 대략 매월 20~35만 원 지원받게 되는데 간병비 이외 병원에서 발생하는 진료비나 치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연꽃마을은 스님 간병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스님 간병비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스님 간병비 지원 기준 스님 간병비 모금에 관한 업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연꽃마을은 요양원과 요양비 지원 규정’은 11개 조항의 규정으로 구성되었다. 규정에는 재정부



연꽃마을 대표이사 각현 스님.

복지법인인 연꽃마을은 설립 사명을 다하고,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노후가 염려되지 않는 수행 환경 만들기 캠페인’으로 스님들의 간병비를 모금하고 있다.

각현 스님은 “평생을 무소유로 수행에 전념한 환자 스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연꽃마을이 시작하는 스님들의 간병비 지원활동이 승려노후복지에 미력하나마 작은 씨앗을 뿌리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간병 모금액은 원칙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사부대중의 신뢰

를 얻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에 정진할 수 있도록 스님 간병비 모금활동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연꽃마을은 2일, 안성 칠현산 칠장사(주지 지강)와 ‘효의 사회화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불교적 이념을 실현하는 지역사회 대표적인 두 기관의 이번 협약은 국내 최초로 노인복지시설과 사찰이 맺은 것이다. 두 기관은 향후 지역 사회복지 정보와 사회공헌활동의 여건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효를 실천하는 기관으로 상호 발전하도록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복지 발전에 관한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칠장사는 매월 1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연꽃마을과 함께 요양원 및 재가복지 대상 어르신들의 생신상 차려드리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사찰의 사회공헌 활동에 필요한 정보 교환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양측이 협의해 상호 필요를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bohnyung@buddhapia.com

신륵사 자비기금

육천만원, 아름다운동행에

여주 신륵사 주지 세영 스님(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은 9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집경실에서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에 자비나눔기금 6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기금은 여주 아동보호센터에 지정기탁 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지관 스님이 “경기가 어려운 처지에 신심을 모아 줘서 고맙다”고 말하자 세영 스님은 “봉사해준 신도들 덕분이다”며 답했다.

이어 세영 스님은 “이번 겨울에는 여주쌀을 사서 불우이웃들기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기금 전달식은 세영 스님과 손정국 신륵사 신도회장을 비롯해 여섯 명의 신도가 함께 참여했다.

박선주 기자

석관실버복지센터 개관

진각복지재단 위탁운영... 프로그램 다양

서울시 성북구 의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한 실버센터가 9월 9일 개관했다.

성북구청(구청장 서찬교)에서 건립한 성북구립 석관 실버복지센터는 진각복지재단(이사장 혜정)에서 위탁운영을 하게 된다.

석관실버복지센터는 석관1·2동이 석관동으로 합쳐지면서 유휴공간으로 남겨진 석관 2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한 것이다.

석관실버복지센터는 지상 2층 건물로 478㎡ 면적에 조성됐다. 1층에는 나눔실, 바둑장기실, 전산교육실,



성북구립 석관 실버복지센터 개관식에서 테이프 커팅하는 모습.

친목도모실, 건강증진실, 2층에는 배움교실과 열린교실 등이 들어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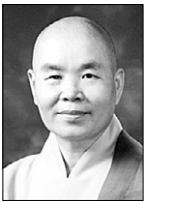
복지센터는 △건강프로그램(요가, 스포츠댄스, 어르신 태권도) △교양교육프로그램(영어노래, 한글·초급영어) △컴퓨터프로그램(인터넷 기초와 포토샵) 등의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다.

이날 개관식에서 진각복지재단 이사장 혜정 정사는 “어르신들이 남은 여생을 재밌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복지재단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02)957-9923 글=이나은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경기도지사상 수상

일산노인복지관 노인 스님

노인복지분야에 주력해온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 스님(사진)이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다.



노인 스님은 9월 8일 수원 장안구 민회관에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제1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

스님은 “일산노인복지관 부설 호수문화대학교를 공식기구인 노인 평생학습센터로 만들어 어르신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나은 기자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괘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귀신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제 권하기가 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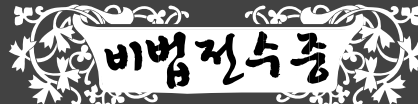
- * 귀장술 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 귀장술 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 귀장술 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 귀장술 12신궁의 매매·이동운 보는 법
-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 귀장술 12신궁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厄運)을 막는 법
- * 집안 동토(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 자녀(子)의 운(運)을 좌우(左右)하는 법
- * 취직(求職)·승진(昇進)시험의 합격(合) 판(判)법
- * 선거(選) 후보(候補)당선(當選) 여부를 판(判)법
- * 관(官)·공(公)무원(員) 진(進)자리(位) 입(立)관(官)가능(能)여부
- * 소송(訴訟)·판(判)사(司)의 승(勝)판(判)법
- * 보고(報)고(告)싶(希)은(은) 사(事)람(人), 기(期)다(待)리(리)는(는) 사(事)람(人) 소(소)식(食)가(可)능(能)일(일)
- * 가(加)출(出)자(者)가(가) 언(言)제(制)쯤(쯤) 집(집)에(에) 돌아(來)올(올)까?
- * 잃(失)어버(버)린(린) 분(分)실(失)물(物) 위(위)치(치) 추(追)정(定)법
- * 도(道)주(主)·도(道)망(望) 사(사)람(人)이(이) 어느(어느) 쪽(쪽)으로(로) 갔(갔)을까?
-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宗)원(源)귀(鬼)법
- * 12신궁에 암(暗)장(藏)된(된) 악(惡)령(靈)귀(鬼)신(神)
-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前生)투(投)시(時)법
- * 前生(前生)의 夫(夫)婦(婦)인(人) 원(源)침(沈)살(殺)이(이) 現生(現生)에(에) 미(미)치(치)는(는) 현(現)상(相)
- * 귀장술(歸藏術)로 뽑(뽑)은(은) 빙(氷)의(의)착(着)귀(鬼)신(神)론(論)
- * 귀장술(歸藏術)로 뽑(뽑)은(은) 사(死)후(後)환(換)생(生) 귀(鬼)신(神)작(作)해(해)론(論)
- * 산(山)소(所)·무(無)덤(塚)에(에) 관(觀)해(해)서(서) [음(陰)택(宅)법]
- * 무덤(墓)안(內) 유(遺)골(骨)의(의) 현(現)재(在)상(相)대(대) 알아(알)내(내)는(는) 법

글·백초스님
상·하권 / 720면 / 정가 각 120,000



百超律歷學堂

입금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계좌 |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02) 3667-4446
010-3813-4443